

# 추억과 헛것 사이

이제하 · 한승원 · 윤후명의 작품을 읽고

손경목

문학평론가

얼마 전에 나온 이제하의 《삐꾸아씨 삐꾸귀신》은 우리 소설의 통상적인 흐름에 비추어 드물게 보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 이야기란 작중의 주인공에게 옛날에 기르던 죽은 개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도 아닌 개의 귀신이라니. 독자는 대중매체들이 소재로 애용중인 귀신 이야기를 중견작가의 소설에서 새삼 미추치게 된다는 데 얼마쯤 당혹스러워 해야 할지 모른다. 소설이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있음직한 일을 다룬다는 통념의 배반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의 것일 수 있다.

## 현실의 숨은 이면 드러내는 비현실

이 통념 안에서 죽은 존재의 나타남은 환상이나 환각의 이름을 얻게 마련이다. 그러나 《삐꾸아씨 삐꾸귀신》은 환상과 현실 사이에 엄격하게 그어진 경계선을 지운다. 카프카의 소설이 그렇듯이, 이 작품은 주인공의 비현실적인 경험의 서술을 그의 일상에 관한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와 겹쳐놓는다. 시인이고, 독신이고,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들과 아옹다옹 살아가는 인물의 삶의 세부에 귀신의 출현은 논리의 단층이나 충동을 일으키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비현실적 경험은 한갓 비현실 혹은 현실의 타자이기를 넘어서 현실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이자 현실의 숨은 이면을 드러내는 매개라는 의미를 띤다.

귀신의 현현을 발미삼아 드러나는 이면의 현실은 무엇인가. 지난날 아내의 죽음이다. 소설은 이에 관한 두개의 암시를 제공한다. 주인공은 아내가 외간남자와 출분한 뒤 죽음에 이르렀음을 분노어린 어조로 일러주고 있는 한편,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주인공과 처제 사이에 불륜이 있었음이 암시된다. 서로 모순되어보이는 이 두 세목은 죽은 아내에 대해서 가해/피해 관계의 뚜렷한 분간과 해명이 가능하지 않은 모호하고 불합리한 정황 속에 그의 삶이 놓여 있음을 말해 준다. 죽은 개의 귀신과 마주치고 그 개의 화신이라고 믿어지는 여자를 만나는 비합리적인 체험, 헛것 보기는 이 불합리한 정황의 대응물이랄 수 있다. 귀신/헛것은 심리적 화해나 이성적 질서로의 통합을 겪지 못한 채 억눌린 상처로 남은 과거가 현재 속에 모습



따지고 보면 소설이란 특별할 것 없는 존재가 체험한 별반 자랑스럽지 못한 삶의 시간들을 공공의 유산으로 간직하려는 노력 아니던가. 그래서 작가들은 거듭 추억 속에 잠기고 소설은 끊임없이 씌어진다.

을 드러내는 통로인 셈이다. 실체는 부재하되 현재에 적용하기를 그치지 않는 점에서, 과거는 헛것인 동시에 헛것이 아니다. 《삐꾸아씨 삐꾸귀신》이 간결하게 부조해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거의 기억에 풀려날 기약 없이 결박되어 있는 자의 '마음의 지옥'이다.

'텅 빈 벌집'으로서의 아파트, 교통사고 현장에 쏟아진 잘린 돼지머리들 같은 이미지는 그 내면의 정황이 오늘의 보편적 삶이 간직한 황폐함의 거울일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그러나 외부현실에 대하여 주인공이 단호하게 표시하는 공감의 거절은 역으로 그의 고통에 대한 독자의 공감의 폭을 자진해서 제한하는 듯한 측면이 있다. "독재 아니면 민주, 부패 아니면 정의"를 내걸고 대립해 온 세력들 모두에 대한 적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경멸이 그러하다.

헛것이면서 헛것이 아닌 과거의 기억은 윤후명 소설 속의 많은 인물들을 사로잡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소설집 《여우사냥》에 실린 여섯편의 중단편에서도 이 점은 뚜렷하다. 인물들은 떠나간 여자와의 추억 속에 여전히 잠겨 있거나 사라진 유토피아

의 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록된 소설들의 기저음이 상실감, 패배의식, 회한 같은 정서인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욕망과 현실의 이반을 뼈아프게 맛본 자의 정서이다. 하지만 잘나서 불과할지언정 그들의 행복한 만남을 향한 발돋움, 또는 진정한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의 존재는 윤후명의 소설에 두드러지게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드리우면서 작중인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행의 도정 위에 있게 하는 까닭이 된다.

여행의 도정에서, 또 그 결과로서 인물들이 얻는 것은 세상 도처에 존재하는 향기의 발견이다. 그것은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 자체에 대한 긍정, 실패의 기억을 딛고 진정한 것의 모색을 이루어나가는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을 함축한다. '별을 헤는 마음으로'에 나타나는 "하늘에 뿌리는 드리운 나무"는 현실과 이상 어느 한쪽도 단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상징이다.

작중인물이 하나의 인물로 수렴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여우사냥》의 소설들이 고백체 사소설(私小說)의 모습을 띤다는 것은 쉽게 눈에 띄는 사실이다. 여기서 일정한 동어반복의 위험이 생겨난다. 인물들의 발걸음을 따라 펼쳐지는 여행지역들의 풍물 묘사는 때때로 소설경제의 원천면에서 과도한 정보 유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우사냥》이 발휘하는 흡인력은 이 소설집에 넘쳐나는 사적 고백이 동시대 삶의 넓은 맥락에 대한 눈길을 배제하지 않는

한편 실존의 무게가 실린 모색의 진지함에도 뒷받침된 데서 오는 것일 터이다.

## 실존의 무게 실린 진지함

한승원의 《해산 가는 길》은 유년의 추억을 향하여 뻗어 있다. 아버지인 화자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회고의 형식을 띤 이 장편소설은 식민지 시대에서 6·25 직전에 이르는 시기 남도의 갯가 마을이 길러낸 한 유년의 풍경을 되살려낸다. 그 풍경의 세목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풍성하다. 작가는 화자가 태어나서 중학교 들어가기까지 만나는 사람과 살림살이와 자연의 세부를 연대순으로 망라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엔 어린 화자가 자아와 육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의 경이, 무궁무진한 놀이터로서의 자연, 남과 나를 가릴 것 없는 가난, 마을 외부로부터 별안간 닥쳐오는 크고 작은 변란들, 피바르거나 어리석고 너그럽거나 편협한가 하면 모질기 이를 데 없는 수다한 인물들이 유년기와 현재를 왕복하는 화자의 시점에 포착되어 있다.

유년할 만한 것은 이러한 풍경을 서술하는 《해산 가는 길》의 화자가 자전 형식의 소설에 종종 끼어드는 자기 미화나 과장의 위험을 주의깊게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는 자신이 이리저리하게 환경을 이겨왔노라고 말하는 대신 얼마나 약하고 불품없는 존재였던가를 고백한다. 그 고백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가령 '여순사건'의 토벌대에 게 엉뚱한 고자질을 하고 마음을 줄이는 대목 같은 것이다. 화자의 고백은 그림으로써 부끄러움을 지拂하는 대신 진실성의 울림을 얻는다. 이렇게 맨살을 드러내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화자는 자식들에게 스스로 살았던 시간을 "어떤 값인가를 지닌 무형의 유산"으로 제공하려는 욕망을 품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소설이란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존재가 체험한 별반 자랑스럽지 못한 삶의 시간들을 공공의 유산으로 간직하려는 노력이 아니던가. 작가가 겪은 좌절과 실패가 되풀이될 줄 알면서, 다만 그 좌절과 실패가 한치라도 줄어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작가들은 거듭 추억 속에 잠기고 소설은 끊임없이 씌어진다. ❖